

- 주요 뉴스: 오미크론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,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일 가능성
  - 미국 10월 무역수지, 671억달러 적자로 전월비 17.6% 감소, 수출 호조에 기인
  - ECB 정책위원,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고려 시 자산매입 확대는 불필요
  - 중국 11월 수출, 전년동월비 22% 늘었으나 전월(27.1%) 대비 증가세 둔화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오미크론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
 주가 상승[+2.1%], 달러화 보험[-0.03%], 금리 상승[+4bp]
 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경기 회복 기대와 박테크주 강세 등이 견인  
 유로 Stoxx600 지수도 기술주 강세 등으로 2.5% 상승
 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다음 주 FOMC 앞두고 일부 포지션 조정 등이 영향  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2%, 0.1% 하락
 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이 반영  
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77.5원, -2.6원) 0.2% 하락, 한국 CDS 하락

|    |      | 12/7일   | 12/6일   | 전일대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12/7일   | 12/6일   | 전일대비   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4,686.8 | 4,591.7 | 2.07% 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1.47%   | 1.43%   | 4bp     |
|    | 유럽   | 480.18  | 468.71  | 2.45% 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-0.38%  | -0.39%  | 1bp     |
|    | 중국   | 3,595.1 | 3,589.3 | 0.16% 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20bp    | 21bp    | -1bp    |
|    | 일본   | 28,456  | 27,927  | 1.89% 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48bp    | 51bp    | -3bp    |
|    | 한국   | 2,991.7 | 2,973.3 | 0.62% 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-       | 394     | -       |
| 환율 | 달러지수 | 96.30   | 96.33   | -0.03% |                 | VIX   | 21.89   | 27.18   | -19.46% |
|    | 유로화  | 1.1267  | 1.1285  | -0.16% |                 | WTI유  | 72.05   | 69.49   | 3.68%   |
|    | 엔화   | 113.60  | 113.48  | -0.11% | 원자재             | 구리    | 433.6   | 433.7   | -0.03%  |
|    | 위안화  | 6.3663  | 6.3763  | 0.16% 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1,784.1 | 1,778.7 | 0.31%   |
|    | 원화   | 1,179.5 | 1,183.0 | 0.30%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오미크론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,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일 가능성

- 최근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피력. 존스 홉킨스의 Emily Gurley는 오미크론이 덜 심각하다고 진단. 미국 국립알레르기·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소장도 오미크론이 감염력은 강하나 실제 위험도는 낮은 것 같다고 언급
- GlaxoSmithKline과 Vir Biotechnology는 자사의 항체치료제가 오미크론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.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, 작년 3월과 같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경제성장 훼손 우려가 급증하는 사태가 재발하지는 않을 전망
- 이를 반영하여 주요 주가지수는 12/6~7일 이틀 동안 큰 폭 올랐고(S&P500 지수, +3.27%), 국채 장기금리도 상승(미국 10년물, +0.14%p). 이에 금융시장의 핵심 관심사도 오미크론에서 점차 통화 및 재정정책 등으로 다시 이동할 것으로 예상
- Miller Tabak의 Matt Maley는 오미크론 불안 완화 고려 시 단기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 같다고 평가.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가능성, 공급망 차질, 미·중 갈등 등 많은 위협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미국 10월 무역수지, 671억달러 적자로 전월비 17.6% 감소. 수출 호조에 기인

- 같은 달 수입이 0.9% 늘었으나, 수출이 에너지 및 농산물 부문 중심으로 전월비 8.1% 증가하여 적자 규모가 감소. 이번 결과는 4/4분기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.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수출 호조에서 일회성 요인이 많다고 주장

### ■ ECB 정책위원,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고려 시 자산매입 확대는 불필요

-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뮐러 총재는 역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ECB의 예상을 상회할 수 있다면서 3월에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이 예정대로 종료된 이후에는 기존 자산매입프로그램의 규모를 다시 증액시킬 필요는 없다고 강조
-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카지미르 총재는 PEPP 종료 이후 다른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 피력.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, 자산매입 규모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

- ECB 은행감독위원장, 은행의 신용 위험이 증가. 정부의 경기부양책 축소에 기인
  - 엔리아 위원장은 향후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질적 저하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가 존재한다고 지적. 또한 일부 부문에서는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
- 독일 12월 ZEW 경기기대지수, 29.9로 전월(31.7) 대비 하락
  - 이번 결과는 공급 차질 등이 향후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. ZEW의 아힘 뢰바흐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성장 모멘텀 강화 기대가 약해졌다고 진단
- 중국 11월 수출, 전년동월비 22% 늘었으나 전월(27.1%) 대비 증가세 둔화
  - 세관총서에 따르면, 11월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서구 주요국의 연말 연휴 소비를 위한 수입이 이미 대부분 충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
  - 한편 같은 달 수입은 전년동월비 31.7% 늘어나 전월(20.6%) 대비 증가. 이는 석탄, 천연가스, 원유 등 주요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이 증가한 것에 기인
- 중국 인민은행, 농가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재대출 금리를 0.25%p 인하
  - 인민은행 관계자에 따르면, 이번 조치는 지급준비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된다고 언급. 시장에서는 대출우대금리(LPR)의 인하 여부를 주목하고 있으나, 노무라 증권은 단기적 측면에서 LPR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
- 호주 중앙은행, 기준금리 및 월간 자산매입 규모 동결
  - 이번 결과로 시장에서는 호주 중앙은행이 당분간 기존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. 로우 총재는 오미크론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, 이로 인해 기존의 경기회복 경로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

## 주요 경제지표

-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트(12/7 현지시각 기준)
  - 유로존 3/4분기 성장률(확정치, 전기비): 2.1%, 2/4분기(2.2%), 수정치(2.2%)
  - 독일 10월 산업생산(전월비): 2.8%, 9월(-0.5%), 예상치(0.8%)
- 주요 경제 이벤트(12/8 현지시각 기준)
  -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, 미국 10월 JOLTS 구인건수, 일본 3/4분기 성장률

##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### ■ 코로나 19의 새로운 변이, 경제적 영향은 이전과 차별화 - WSJ

(Omicron Will Cause Problems, but Inflation May Not Be One)

- 미국 통화당국은 오미크론이 기업의 공급망과 고용문제를 악화시켜,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.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. 이는 이전 코로나 19 직후와 비교하여 대규모의 재난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낮기 때문
-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재개되지 않으면, 저축이 소진되고 특별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어 소비심리가 이전 코로나 19 사태 시기보다 저하될 소지. 특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등의 고가 상품 수요둔화가 발생하여 물가상승 압력도 약화될 전망

### ■ 12월 ECB 통화정책회의, 추가 부양책의 추진 가능성은 낮은 편 - Financial Times

(Omicron adds to doubts over ECB's commitment to further stimulus)

- 11월 인플레이션은 4.9%로 유로존 창설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, ECB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하회를 예상. 12/16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내년 3월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 종료 이후 추가 채권매입에 대한 논의가 예상
- 하지만 오미크론에 따른 공급 차질 심화, 연준 테이퍼링 가속화 논란, 인플레이션 전망치 2% 이상 상향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추가 부양책에 따른 이점은 제한적. 이에 ECB는 12월 회의에서 해당 결정을 연기하거나 매파적 성향으로 선화할 소지

### ■ 그림자 금융,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위기 대비가 필요한 시점 - Financial Times

(Shadow banks must come out of the shadows)

### ■ 터키의 비정상적 경제정책, 자국 통화와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 초래 - WSJ

(Why the Turkish Lira Is Falling Like a Rock)

### ■ 전세계 회계규정, 성과 확대 목적의 임의적 조정에 대한 규제강화가 요구 - Financial Times

(Bogus numbers still cloud company accounts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[jsjeong@kcif.or.kr](mailto:jsjeong@kcif.or.kr)